
-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 보고서 ||

I . 총 평		1
II .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4인)		3
③ 종합토론		6
④ 청중토론		7
⑤ 마무리 말씀		11
III . 토론회 과제 및 결론		11
IV . 후속조치		12

-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농업의 지속가능과 농민의 소득증진 등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토론회 개요 〉

- (때 · 곳) 2023. 9. 1.(금) 14:00~16:00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
- (주 최) 충청남도의회(신청 : 오인환 의원)
- (주 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 (참 석) 100명(도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현재 농업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와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으로써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물가상승과 국제유가 불안, 원자재값 폭등 및 외국인 노동인력의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생산비 부담 상승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과 농업의 경영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아쉬운점 또는 보완사항〉

- ▶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농업예산의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추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 도출이 필요함
- ▶ 청중토론(질의답변) 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시간 계획 조정이 요구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①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22년, 23년 중앙정부 농업예산

-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을 프로그램과 세부사업별로 분석해 발표함
-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림수산 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5.4%에서 올해 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림수산 예산 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감률을 기록한 뒤, 2021년 5.3%, 2022년 4.5%, 2023년 2.9%로 꾸준히 감소했음
- 22~23년 농업농촌 부문 부처별 프로그램별 분류에 따르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액이 올해 10% 증가하여 4조 7,497억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양곡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효율화 프로그램 순임
- 농가경영안정 프로그램 중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으로 직접직불 기금이 작년보다 13.8% 증액된 2조 6,867억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농업재해보험과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등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이 뒤를 이음

○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

- 올해 농림해양 예산 비중은 충남도가 9.8%, 논산시가 12.5%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농업농촌 비중은 총 10.6%로 나타남
- 충남도 농림해양수산 부분 예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배수개선사업,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항만개발, 기초생활거점육성 순으로 크게 구분됨
- 충남도 농업예산 관련 사업으로는 갯벌식생 복원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순으로 나타남
- 올해 논산의 농림해양수산 부분 예산은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용·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순임

② 지정토론(4인)

① 이정숙(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

- 귀농·귀촌인들이 이주과정 중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착에 필요한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함
- 귀농·귀촌인들은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택지개발을 위한 예산편성과 농가안정을 위한 농지구입자금을 현행 3억에서 5억으로의 증액이 필요하며,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경제적 부담은 줄여주는 현실성 있는 예산정책 마련이 요구됨
- 그 외 귀농·귀촌인 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소형농기구 지원사업의 지원요건 완화,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인 중 여성 농민에 대한 육성 등 지원대책이 필요함

② 이택현(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 노동력 부족, 생산비 폭등,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우나 확실한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은 경매시장에서 정해지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합리적인 예산확대나 사업요구는 한정적인 농업예산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며 예산 편성 과정은 물론 사용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더욱 바람직한 농정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것임
- 불합리한 예산 계획과 집행 결과는 오롯이 농민에게로 직결될 것이기에 농업인의 의견을 한데 모으고, 구체적인 농정예산을 제안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음

③ 석영환(논산품목연구연합회 회장)

- 농업정책에 대해 ①비용을 절감하는 농업, ②우수한 농산물의 생산, ③우리 농산물의 세계화, ④논산농업의 산업화, ⑤농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함
- 농업인이 바라는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농업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①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업 개선, ②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대한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 확대, ③농업인 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전문가 양성 지원, ④각종 농업 보조사업 시 일정 부분 농업인이 사업비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

④ 양두규(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 **대외)** 러-우 전쟁의 장기화, 일본 오염수 방류 강행 등 외부 충격으로 원자재와 곡물가격 인상이 전망됨. **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농가 인구 감소로 농업 생산력 증가세 둔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재편에 의한 양극화 확대. **환경)** 농축산 에너지 전환, 영농법 개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등 탄소중립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필요. **재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 상존과 극한 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여건 속에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써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함

○ 농업분야 예산현황

- 정부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 분야 비중(구성비)은 2021년 4.1%, 2022년 3.9%, 2023년 3.8%로 점차 감소했고,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 분야 비중(구성비)은 2021년 11.34%, 2022년 11.60%, 2023년 11.90%로 다소 증가함

○ 민선8기 농업예산 확대방안

- 농업예산 확대분야로는 ①지역거점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환경위기 대응 등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②공동생활홈 조성 등 생활여건과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등 살고싶은 농촌조성, ③산불, 가축전염병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수리시설 개보수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등 재난대비 안전기반 구축이 있음
- 민선8기 농업분야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단계별 영농정책 지원 확대, 생활SOC 기능 확충 및 복합 거점화,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사업 등 도정과제 22건에 8조 9,630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3] 종합토론(질의답변)

<질문>

2024년 우리나라 예산 총평 및 효율적인 예산 투입은 어떤 것인지?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답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은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두 배 정도 증액되었으나 타 예산은 감액된 것이 경기방어를 위해 SOC 예산을 늘렸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내년 총선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임. 농자재 구입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기자재 구입’ 예산은 감액하고 농민에게 직접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공영역으로 시너지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질문>

‘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충남에서 유사 조례 제정 계획이 있는지 질의함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답변>

영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도 차원에서 도내 농가들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노력하겠음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4 청중토론(질의답변)

<질문>

6~70대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 수렴 요청 및 딸기시험장의 인력을 현재 5명에서 더 늘려줄 것을 제안함

【박동진】

<답변>

농업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청년농업인육성정책에 가려져 홀대받지 않고, 농업자생력을 갖춰 대농으로 양성될 수 있는 고령농에 대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딸기시험장 인력 보강은 확정짓기 힘들으나 현장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농기계 지원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간식비 지원 증액, 넷가 등지 가시 박덩굴로 인해 피해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함

【이은우 충청남도 주민자치연합회 부회장】

<답변>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농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농기계 등 지원 사업은 논산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농기계 등은 개별구입보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외래종 퇴치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탐정호 4개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38명 어민을 위해 선착장 조성 등 지원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제안함

【김용하 탐정호 어업계장】

〈답변〉

영어조합법인 탐정호 주변에 선착장 조성 등 지원 예산 확대와 논산시 수산과 담당 외래종 퇴치 사업도 해마다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이 문제되고 있는데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 충남도에서 토종씨앗 생산장려사업으로 1평방미터 당 100원을 지원했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 사업이 없어졌고, 충남에서 당진시만 종자증식관리를 지원하고 있음. 토종씨앗을 육성하고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개인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어 충남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경기도의 경우 토종종자 채종(씨앗 생산) 및 농가 보급사업으로 농사를 지어 토종종자를 도에 제출하면 한 종당 1십만원을 지원함
- 충남도의 경우 여성바우처지원사업 대신 편의장비와 해외연수를 지원하나, 타 시도의 경우 편의장비와 해외연수 지원과 함께 바우처 지원도 병행하고, 75세에서 85세까지 지원범위도 확대되었음. 여성바우처카드는 단순 ‘용돈’ 개념이 아닌 여성농민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추후 사업의 재검토를 건의함

【권태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회장】

〈답변〉

앞서 예산 지원과 관련된 질문과 같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올해부터 농지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젊은 농민들 대상으로 농지 임대

와 매매가 이뤄지나 노령농은 임대차 계약 자체가 힘들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함

【김갑수 성동면 이장】

〈답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정책의 변경을 확답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회나 농지은행 측에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음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타 지역과 같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진행과 농촌에서 가장 많이 찾는 농협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 논산시 버스를 탑정호 주차장에 주차할 것이 아니라 논산투어에 활용해줄 것, 코로나19 손실보전 등 특별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달리 농민에 대한 지원은 전무(全無)하고 농민 수당을 지급하는 소득기준이 과거와 변함없이 낮아 증액해줄 것을 적극 건의함

【임태빈 부적면 신평리】

〈답변〉

논산시와 충남도 사업 담당자와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경청해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고, 수당 지급 소득기준이 되는 상한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주민참여 국비, 도비, 시비 예산 중 도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도의 예산 상황에 대한 설명과 여성 농업인에게 필요한 작업대나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편의장비가 논산시 할당 수량은 100대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해 여성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선해줄 것을 건의함

【박정희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지회 전(前) 회장】

〈답변〉

편의장비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대폭 늘려, 올해 2천대에서 3천대로 늘리고, 내년에는 1만대로 예산을 증액 편성할 예정임. 건의해주신 사업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는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양두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

〈질문〉

노티삼거리에서 논산역으로 가는 도로 주변 사고 위험이 높아 2차선으로 도로 확장해줄 것을 건의함

【하정수 노성면 화곡리】

〈답변〉

노티삼거리 주변 노선 연장을 위해 현장 답사를 마쳤고, 논산에서 공주KTX역까지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도로 확·포장을 제안중에 있으며,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마을을 찾아 설명드릴 예정임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질문〉

저탄소농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법이 필요하고, 친환경 직불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의 지평을 넓히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건의함

【손병륜 논산시농어업회의소 회장】

〈답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회장님의 좋은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5 마무리 말씀

- 국내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천하의 근본으로 여기며 농업을 지켜왔음
- 종자보급 지원, 여성 농업인 바우처 확대, 직불금 확대 등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한 모든 질의를 청취하고자 노력하였고, 토론자의 토론 과정을 통해 농업예산이 농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음
- 종합토론과 청중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도정과 시정에 반영되고 안정적인 농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통해 노력해나갈 것임

[오인환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과제 및 결론

〈과 제〉

- 농업환경 개선 및 공동이용 농기계 확대 지원
-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가 경영위기 극복 지원
- 여성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 확대를 통한 위상 강화
- 농업예산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과 행정 제도 마련
- 농업인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한 농업정책 발굴과 시행 노력
- 농업기반 구축 및 저탄소 친환경농업 환경보전 지원 등 환경위기 대응

〈결 과〉

-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농업예산 정책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자 상호간, 청중과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함
- 식량안보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인 농업의 중요성과 농민 소득 증대 및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농업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농업예산 확대를 통한 농업정책 발굴 및 농촌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입법활동과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IV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출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 붙임 1. 의정토론회 사진 1부.
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 동향 1식. 끝.

붙임 1

의정토론회 현장 사진



[단체 사진]



[인사 말씀]



[토론 모습 1]



[토론 모습 2]



[토론 모습 3]



[마무리 말씀]

2023년 09월 04일 (월)

종합 02면

동양일보



충남도의회,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농업예산 의장토론회 개최 지원 강화·성장산업화 필요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에 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사진〉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논산2·더불어민주당)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이어 이정숙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장과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석영환 논산품목연구연합회 회장, 양두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위원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립수출 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5.4%에서 올해 3.8%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농

립수출 예산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21년 5.3%, 2022년 4.5%, 2023년 2.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농립해양 예산 비중은 충남도가 9.8%, 논산시가 12.5%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의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 오광연 기자 okh2959@dynews.co.kr

도의회, 농업경쟁력 제고 '예산' 확대 논의

식량안보 미래 성장산업, 농업 중요성 강조

오인환 의원, 소득증대 농촌공간 조성 제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정숙 논산시 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과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석영환 논산품목연구연합회 회장, 양두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림수산 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5.4%에서 올해 3.8%로 지속적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 의정토론회 모습

충남도의회

으로 줄고 있으며, 농림수산 예산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21년 5.3% 이후 지속 감소했다. 올해 농림해양 예산 비중은 충남도 9.8%, 논산시 12.5%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가 농업의 현실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농업의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이희윤 기자

중부매일

'농업경쟁력 제고' 예산 확대 논의

충남도의회, 소득·경영안전 지원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인환 의원(논산·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가 농업의 현실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농업의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진현 / 내포

충청매일

충남도의회, 농업예산 확대 논의

의정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정숙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과 이택현 논산시농

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석영환 논산품목연구연합회 회장, 양두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립수산 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5.4%에서 올해 3.8%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농립수산 예산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21년 5.3%, 2022년 4.5%, 2023년 2.9%로 감소했다. 올해 농립해양 예산 비중은 충남도가 9.8%, 논산시가 12.5%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수 기자

충청신문

충남도의회, 농업예산 확대 방안 논의

의정토론회... 오인환 의원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성 제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지난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

했다.

이어 이정숙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과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석영환 논산품목연구연합회 회장, 양두규 충남도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립수산 지출 비중은 지난 2013년 기준 5.4%에서 올

해 3.8%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농립수산 예산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21년 5.3%, 2022년 4.5%, 2023년 2.9%로 감소했다. 올해 농립해양 예산 비중은 충남도가 9.8%, 논산시가 12.5%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형 기자 eullee222@dailycc.net

충남도의회 농업경쟁력 제고 위한 '농업예산' 확대 논의

오인환 의원 '농민 소득증대,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해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농업예산 확대와 산업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은 미래 식량안보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예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증대와 농가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정숙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과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협회의소 사무국장, 석영환 논산품목연구연합회 회장, 양두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림수산 지출 비중은 지난 2013년 기준 5.4%에서 올해 3.8%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농림수산 예산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21년 5.3%, 2022년 4.5%, 2023년 2.9%로 감소했다.

올해 농림해양 예산 비중은 충남도가 9.8%, 논산시가 12.5%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토론회가 농업의 현실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농업의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수 기자

정부 농림수산 예산 지속 감소... "농업 경쟁력 강화 모색할 것"

충남도의회, 농업예산 토론회
정부 지출비중 5.4%→3.8%
예산 증감률 2020년 이후 ↓

"토론회 계기 농업 현실 확인
지원 통해 성장 산업화 준비"

정부의 농림수산 지출 비중과 예산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지난 1일 논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민을 위한 농업예산 연구'를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농민 소득 증대와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농업예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이정숙 논산시귀농귀촌인연합회 회장과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협회의소 사무국장, 석영환 논산품목연구

연합회 회장, 양두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2~2023년 정부의 농업예산과 충남도의 예산, 충남과 논산의 농업 예산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농림수산 지출 비중은 2013년 기준 5.4%에서 올해 3.8%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농림수산 예산 증감률 또한 2020년 7.4%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21년 5.3%, 2022년 4.5%, 2023년 2.9%로 감소했다. 올해 농림해양 예산 비중은 충

남도가 9.8%, 논산시가 12.5%다.

오인환 의원은 "농업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며 행복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진다"며 "농촌 지원 강화와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통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번 의정 토론회가 농업의 현실과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농업의 지속가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제도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병규 기자